

천지개벽과 정신개벽에 따른 인간개벽

崔 東 熙 *

目 次

- I. 천지개벽과 정신개벽
 - 1. 학파를 초월해 있는 천지개벽관
 - 2. 천지개벽에 대한 정신개벽
- II. 인간개조의 단계와 목표
 - 1. 인간의 지성적인 자각과정
 - 2. 인간의 실천적인 자율

I 천지개벽과 정신개벽

1. 학파를 초월해 있는 천지개벽관

우리 인류가 아득히 먼 옛날부터 매우 궁금하게 여겨온 것 가운데 하나가 저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는 수수께끼였다. 이것을 우리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아 “천지개벽”(天地開闢)이라 한다. 한나라 초기(기원전 120년쯤)에 비로소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천지개벽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하늘과 땅이 아직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하여 (천지 만물의 밑감이 되는) 무엇이 온통 가득 찬 듯 혹은 마구 날리는 듯 하고 또 험하니 빈 듯 혹은 끝없이 죽 이어진 듯하다 그래서 ‘태시’(太始, 만물의 형체가 아직 생기기 이전의 시초)라 한다. 이 태시가 ‘허확’(虛廓, 텅비고 그지없이 너른 것, 곧 무한한 공간)을 낳고 이 허확이 ‘우주’(宇宙, 공간과 시간으로 된 온세계)를 낳고 이 우주가 ‘기’(氣, 만물을 생성하는 밑감)를 낳았다 .

*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철학박사

기에는 일정한 한도와 구별이 있으므로 맑고 밝은 기는 가볍고 아름다워서 하늘이 되었다. 그 무겁고 흐린 기는 엉기고 굳어져서 땅이 되었다. 하늘과 땅의 '쌓인 순수한 기'(精氣)가 음양(陰陽, 음기와 양기)으로 되고 음양의 '몽친 순수한 기'가 사철(四時,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고 사철의 '흩어진 순수한 기운'(散精)이 온갖 물건으로 된다. 쌓인 양기(積陽)의 뜨거운 기가 불로 되고 불의 기(火氣)의 순수한 것이 해가 된다. 쌓인 음기(積陰)의 찬 기가 물로 되고 물의 기(水氣)의 순수한 것이 달이 된다. 해와 달에서 넘쳐흘러 나온 순수한 것이 별들로 된다. 하늘은 해와 달 및 별들을 받아들이고 땅은 빗물과 티끌을 받아들인다.(淮南子, 第三 天文訓)

여기서 고대의 중국 사람들이 천지의 개벽을 생각해 온 자취를 찾아볼 수 있다. 아직 이 세상 아무것도 그 모습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혼돈'(混沌, 카오스 <Chaos>)으로부터 하늘과 땅 및 만물이 생겨나는 과정을 온갖 지혜를 기울여 설명하고 있다. 역시 세계 다른 민족들의 옛 신화와 서로 통하는 대목(혼돈으로부터 질서로의 과정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그 내용은 상당히 합리적으로 짜여져 있다. 저 전국시대(戰國時代) 말기쯤부터 널리 활용되어 온 음양설(陰陽說)이 치밀하게 적용되어 있어서 신화적인 소박함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러므로 이 천지개벽의 사상은 그 동안 음양오행설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직도 학문적인 이론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아직 이 천지개벽설을 의식적·무의식적으로 학문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 동안 우리 사회는 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왔는데 이 유교가 한대 이후 음양설을 많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의 문제가 있다. 저 한대 유학이 음양설을 받아들였다고 하여 위에서 본 「회남자」(淮南子)의 천지개벽설도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본래 유학에는 최고의 인격적인 존재인 '천'(天, 하느님)이 있다. 따라서 유학에서는 천지개벽도 그 근원은 '천'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천'이 물건을 낼 때 반드시 그 재질에 따라 후하게 베풀다."(故天之生物, 必因其材, 而篤焉. 「中庸」, 第十七章) 이렇게 유학에서는 근원적으로는 '천'이 만물을 나게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해 노장학에서는 '도'(道)가 만물을 나게 한다고 본다. 이와 같이 천지개벽에는 본래 어떤 종교적인 근원이 전제

되어 있다. 그렇다면 위 「회남자」에 나타난 천지개벽의 종교적인 근원은 과연 무엇일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남자」에서는 천지개벽이 “태시”(太始)로부터 시작된다. 이 “태시”란 과연 무엇일까? 이 “태시”의 정체를 알기 위해 우리는 「회남자」에서 다루고 있는 “도”(道)에 주목한다. “태시”는 “도”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저 도(道)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덮고 땅을 실으며 사방을 훤히 터놓고 팔방의 마지막 끝(八極, 팔방의 극단, 온 세계)까지 활짝 열어 놓는다. 그 높이는 이루 다 알 수 없고 그 깊이는 이루 다 잴 수 없다... 사방의 구석구석을 가득히 채우고 음과 양을 포함하며 우주를 단단히 묶고 해·달·별(三光)을 밝게 한다. 매우 묽고 멀거며 매우 가늘고 가냘프다. 산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높고 못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깊다. 짐승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달리고 새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난다. 해와 달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밝고 별들(星辰)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돈다. 기린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놀고 봉황은 이것으로 말미암아 난다.(淮南子, 第一 原道訓)

여기서 말하는 “도”(道)는 저 「노자」(老子)에 나타나는 “도”를 이어받았다. “아득한 옛날 ‘하나’(一)를 얻은 것들을 말한다면 다음과 같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 안전하고 신(神)은 ‘하나’를 얻어 영묘(靈妙)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물로 가득 차고 만물은 ‘하나’를 얻어 생겨나고 임금과 제후는 ‘하나’를 얻어 세상 우두머리가 된다.”(「老子」, 三十九章) 이 ‘하나’(一) 곧 “도”(道)를 이어받은 것이 「회남자」의 “도”라는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노장학파(老莊學派)는 “도”를 우리 일상적인 경험을 아득히 초월한 근원적인 실재라고 본다. 그리고 동시에 천지 만물이 다 이 “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더욱 주목되는 것은 유학파에 비해 노장학파는 자연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사상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여기서는 그것을 말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다만 이러한 노장학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 「회남자」에 중국사상사에서는 처음으로 천지개벽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밝혀져 있다는 점을 주목하는데 그친다.

지금까지 「회남자」에 나타난 “도”를 간단히 살펴보고 이것과 「노자」에 나타난 “도”와의 관계도 잠깐 살펴보았다. 이리하여 「회남자」에 나타

난 “도”는 노장학파의 “도”를 이어받았다는 것을 대체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저 천지개벽과 “도”의 관계다. 「회남자」에서 천지개벽은 “태시”(太始)로부터 시작한다. 그런데 “태시”란 과연 무엇일까? 이 “태시”와 도(道)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 “하늘과 땅이 아직 그 모습을 갖추기 이전의 근원적인 것”이 “태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라고 볼 수 있다. 물론 “태시”는 어디까지나 하늘과 땅이 아직 그 모습을 갖추기 이전이라는 측면에서 본 제한된 “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본래 아무런 제한되어 있지 않는 참된 “도”는 무엇이라고 나타낼 수 없다. “천지의 근원에는 이름이 없다.”(無名天地之始. 「老子」, 一章) 여기서 “천지의 근원”(天地之始)이란 바로 “도”인데 이렇게 “도”에는 본래 이름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 부르는 제한된 이름은 있을 수 있다. “태시”(太始)는 “도”의 참된 이름이 아니지만 어떤 제한된 측면이기는 하나 “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여기서 “태시”가 노장학파의 “도”라는 것만 확인하면 된다. 이것이 확인되면 저 「회남자」에 나타난 천지개벽은 “도”의 한 운동이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태시’는 원문에서는 “태소”(太昭)로 되어 있는데 왕인지(王引之)에 따라 ‘태시’로 고쳤다.)

이와 같이 노장학파의 영향을 받은 「회남자」에 중국 고대의 천지개벽 사상이 다소 체계적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그럴만한 사상사적인 사정이 있다. 한나라 무제(漢武帝, 기원전 140-87)는 마침내 유학(儒學)을 중심으로 하는 사상통일의 정책을 내세웠다. 이리하여 기원전 124년에 태학(太學)이라는 국가교육기관이 처음으로 설립되어 유학은 국가가 공인하는 학문으로서 튼튼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이 유학은 한대의 국가적·시대적인 요청에 따라 새로 정비된 ‘한대 유학’(漢代儒學)이었다. 이 태학에 오경박사(五經博士, 다섯 고전인 역경·서경·시경·춘추·예기 <易經·書經·詩經·春秋·禮記>에 대한 전문가)가 임명되었다. 이것은 유학의 연구 내용이 설정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한나라 무제 때 유학이 홀로 국가 공인의 학문으로 되어 가는 과정에서 노장학(老莊學)을 내세워 유학에 대항한 지식인 집단의 움직임이 있었다. “식객과 도사 몇 천명을 초청하여 내서 21편(內書 二十一篇)을 지었

다. 외서(外書)는 매우 많이 지었다.”(「漢書」, 卷四十四) 이와 같이 회남왕 유안(淮南王 劉安)은 식객으로서 거느리고 있던 많은 학자들과 함께 많은 책을 편찬하였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저술 21편(內書 二十一篇)이 후세에 전해졌는데 이것이 바로 「회남자」다. 이 저술(공동저술)은 무제도 매우 소중히 여겼다고 한다. “처음부터 안(安, 회남왕의 이름)이 무제의 조정으로 들어갈 때마다 저술한 책을 바쳤다. 내편(內篇)이 새로 저술되자 황제(武帝)는 소중하게 여겨 깊이 간직하였다.”(위 책 같은 곳) 여기서 말하는 “내편”이 앞에 나온 “내서 21편”과 같은 책 곧 「회남자」다. 이와 같이 한나라의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위해 사상통일을 시도하게 되는 무제가 「회남자」를 읽어보고 이 저서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사실은 여러 모로 주목된다.

이것은 한대 초기의 사상적인 분위기를 잘 말해 준다. 무제는 동중서(董仲舒)의 이른바 「현량대책」(賢良對策, 어진 선비로서 기원전 140년에 무제가 내린 문제에 대해 동중서가 올린 해답)을 통해 유학을 국교로 삼아 사상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회남왕이 편집한 「회남자」를 읽고 무제는 이 책을 소중하게 간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회남자」는 노장학을 중심으로 삼고 있다. 이를테면 무제는 유학을 바로 국교로 삼아야 한다는 동중서의 주장(「현량대책」)과 노장학을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회남왕(무제는 숙부로서 존경하였다)의 주장(「회남자」)을 한동안 아울러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이것은 한대 초기의 사상적인 분위기에 있어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더욱이 「회남자」는 노장학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학 쪽 사상도 긍정적으로 적지 않게 다루고 있다. 이를테면 「역경」(易經)·「시경」(詩經)을 인용해 문제를 논하는 대목이 적지 않다. 이렇게 유가·법가·병가(儒家·法家·兵家) 같은 사상들을 노장의 사상과 절충하고 융합하려는 태도가 「회남자」의 여기저기에 나타나 있다. 그리고 특히 주목되는 것은 동중서가 내세우는 유학에는 음양이론이 대대적으로 활용되어 있다. 이런 점은 「회남자」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동중서가 내세우는 유학과 「회남자」에 나타난 「백가의 사상을 노장사상으로 절충하려는 학풍」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한대의 유학도 한대라는 시대의 요청에 따라 백가의 사상을

유학사상으로 어느 정도 절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맹(孔孟)의 사상과 노장(老莊)의 사상이라는 핵심은 결코 서로 혼동할 수 없다. 다만 정치적·사회적인 현실이 요구하는 한도까지 절충이 가능했을 뿐이다. 그러나 점점 넓어져 가는 환경적·자연적인 영역은 육학이니 노장이니 하는 학파를 넘어선 세계로서 독자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갔다. 후세라면 이것은 자연과 학적인 세계일 것이다. 이러한 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커감에 따라 한대 초기에는 학파를 초월한 독자적인 지식체계가 더욱 더 요구되었다. 이리하여 한대 초기에 음양이론이 학파를 초월해 대대적으로 적용되고 활용되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중서가 유학에 대대적으로 활용했고 「회남자」에도 대대적으로 활용되어 있다. 여기에 또 한대 초기까지의 광범한 경험적인 지식이 대대적으로 동원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한대 초기에 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독자적인 지식체계가 학파를 초월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대 초기의 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독자적인 지식체계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중국 고대과학사가 밝힐 문제다. 여기서 대체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본 「회남자」에 나타난 천지개벽설이 그 중요한 일부라는 점이다. 물론 「회남자」는 노장사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타난 천지개벽설은 그 당시의 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체계라고 볼 수 있다. 이 개벽설 자체는 노장학과 분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개벽설은 그 당시의 유학에서도 저항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한대 유학의 경전인 「역경」(易經)에 간단하기는 하지만 거의 비슷한 천지개벽의 과정이 언급되어 있다. “역에 태극이 있고 이것이 양의(兩儀, 음과 양)를 낳고 양의는 사상(四象, 태양·소음·소양·태음 <太陽·少陰·少陽·太陰> 을 낳는다.”(「周易」, 繫辭傳 上) 사실은 이 「역경」 자체가 바로 한대의 유학이 다른 학파와의 경쟁 과정 속에서 음양설을 받아들여 사상의 체계화를 시도하여 얻어낸 하나의 열매다. 그러나 이 「역경」은 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체계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다. 역시 유학의 테두리 안에 머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회남자」는 여러 학자들의 공동 저술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여러 학파를 절충하려는 의도 때문에 자연적

인 세계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에 좀 더 접근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회남자」에 나타난 천지개벽설을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한대 초기의 음양이론과 자연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대대적으로 활용되어 중국역사에서는 처음으로 다소 체계적인 천지개벽설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 개벽설은 노장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회남자」에 나타나 있지만 그 자체는 한대 초기까지의 자연에 대한 과학적인 지식의 표현이다. 따라서 어떤 학파를 초월한 중국 고대인의 보편적인 개벽관이라고 볼 수 있다. 저무제도 이 개벽관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겼는지도 모른다. 끝으로 이러한 「회남자」의 개벽관과 그 보다 13세기쯤 뒤에 나타난 주자(朱子, 1130-1200)의 개벽관을 비교하여 본다.

천지는 처음에 오직 음양의 기(氣)일 뿐이었다. 이 하나의 기가 운행하여 맏돌처럼 빙빙 돌고 돌았다. 그 돌아감이 빨라지자 어느덧 많은 찌꺼기(渣滓, 찌꺼기지만 여기서는 순수한 기의 선회 과정에서 생긴 찌꺼기인 가스를 말한다)를 방출했다 안으로는 찌꺼기(깨스)가 나갈 곳이 없으므로 그것은 뭉쳐서 중앙에 땅(地)을 형성했다. 기의 맑은 부분은 하늘(天)이 되고 해와 달이 되고 별들이 되었다. 이들은 땅 밖에만 있어서 언제나 돌고 돈다. 땅은 오직 중앙에만 움직이지 않고 있다. 땅이 밑에 있는 것은 아니다.(朱子語類, 卷第一, 理氣上)

이렇게 주자는 그가 산 송대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살려서 저 「회남자」의 개벽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나의 근원적인 기로부터 천지 만물이 차례로 생성하였다는 줄거리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자연현상으로서의 천지개벽을 음양이론을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주자의 과학적인 태도다. 이렇게 주자도 천지개벽을 논할 때는 음양이론으로 설명하는 단순한 태도를 잘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천지개벽 자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대이후에는 유학도 노장학도 학파를 초월해 오로지 음양이론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음양이론이라는 한정된 이론형태에만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이 현상유지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대체로 저 「회남자」의 천지개벽설이 전통적인 개벽관으로서 유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2. 천지개벽에 대한 정신개벽

인간의 문화가 발전하여감에 따라 사람들의 관심과 지식수준도 끊임없이 넓어지고 높아져 갔다. 사람들은 차츰 천지의 개벽보다 인류의 발전 쪽으로 관심을 분산하게 되었다. 점점 천지개벽관도 인류역사의 과정 속에서 다루게 되었다. 이를테면 중국고대의 개벽관, 그리스의 개벽관 같은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혹은 천지개벽을 밝히기 위한 과학적인 방법론에 관심을 기울였다. 혹은 천지개벽은 자연법칙(自然法則)이 지배하는 영역이고 인간사회는 도덕법칙이 지배하는 영역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리하여 자연스럽게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자연의 세계와 도덕법칙이 지배하는 인간의 세계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의 단계에서 천지개벽에 대한 인간개벽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들 명칭·개념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이를테면 ‘천지개벽’이라는 말은 오늘날 과학 쪽에서는 “우주생성”(宇宙生成)이라는 말로 고쳤다. 인간개벽이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극히 일부에서만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인간개벽이라는 말이 나타내고자 하는 내용들은 다른 여러 가지 말로 표현되어 있다. 이를테면 인간혁신·인간혁명·인간개조·인간교양 같은 말들이 그 일례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대순진리에서는 “정신개벽”이라는 말을 선택했다. 인간은 내용적으로 육체와 정신을 갖추고 있는데 육체는 저 천지개벽 쪽에 속하고 천지개벽에 대한 인간개벽은 내용상 정신개벽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신개벽에 대해서는 이미(대순사상논총, 제13집)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간개조”(人間改造)와 관련되는 측면에 대해서만 언급한다.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無自欺)이 정신개벽이다. 그런데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 속에 두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 있다.

- (1) 선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행한다.
- (2) 악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스스로 행하지 않는다.

이것이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인데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숨겨져 있다.

- (1) 스스로 선을 알고 스스로 악을 아는 것을 “지성의 자각”(自覺)이라고 한다.
- (2) 스스로 선을 행하고 스스로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을 “실천의 자율”(自

律)이라고 한다. 이렇게 스스로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지성적인 자각과 실천적인 자율을 뜻한다.

우리 인간의 정신은 본래 지성 <이론이성(理論理性)> 과 의지 <실천이성(實踐理性)> 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정신이 한편으로는 지성적인 자각을 이루고 또 한편으로는 실천적인 자율을 이루는 것이 정신개벽이다. 정신개벽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는데 그 하나가 지성적인 자각이고 다른 하나가 실천적인 자율이다. 이 두 단계를 통해 인간의 정신은 자유를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인간의 참된 정신적인 자유는 지적인 자각과 행적인 자율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참된 자유의 실현 과정은 동시에 인류역사의 발전 과정이기도 하다. 이렇게 인간이 개별적으로 지성적인 자각과 실천적인 자율을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대순진리에서는 특별히 “인간개조”(人間改造)라고 한다.

II. 인간개조의 단계와 목표

저 천지개벽은 오늘날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주생성’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天地)나 “우주”(宇宙)는 다같이 자연적인 세계의 전체를 말한다. 이에 대해 정신개벽이라고 할 때의 정신은 저 자연적인 세계에 대한 인간적인 세계의 전체를 말한다. 여기에는 인간의 정신이 전제가 되는 인간·사회·문화·역사 같은 것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정신개벽에는 독자적인 법칙이 있어서 칸트 같은 철학자는 도덕법칙을 내세웠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은 인간의 지성적인 자각과 실천적인 자율 곧 근원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

대순진리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無自欺)이라고 한다. 헤겔 같은 철학자는 “자기의식”(自己意識, Selbstbewusstsein)이라는 말을 고집하였다. 이와 같이 정신개벽에는 저 천지개벽에 자연법칙이 있는 것처럼 엄연히 그 독자적인 법칙 혹은 원리가 있다. 이 원리에 정신개벽이 차례로 실현되는 길고도 어려운 과정이 있고 그 지향하는 목적이 있다. 이 실현과정을 “인간개조”(人間改造)라 하고 그 실현의 목적은 “세계개벽”(世界開闢)이라 한다. 여

기서는 인간개조만을 다룬다.

1. 인간의 지성적인 자각 과정

우리 인류를 그 참된 자유의 실현을 위해 길고도 어려운 과정을 꾸준히 밟아왔다. 앞으로도 그 참된 자유의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편의상 이 과정을 크게 둘로 나눈다면 그 하나가 인류의 지성적인 자각의 과정이고 다른 하나가 실천적인 자율의 과정이다. 본래 자각과 자율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지만 편의상 나누어 생각할 뿐이다. 또 인류역사와 개인들의 삶의 과정도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인류 역사 속에서 개인의 삶이 펼쳐지고 개인의 삶 속에서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살아 움직인다. 여기에도 인간은 본래 자각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지성적인 자각에 있어서도 인류의 자각 과정과 개인의 자각 과정은 본래 떼어서 생각할 수 없다. 여기에서 저 천지개벽과 정신개벽의 본질적인 차이도 엿볼 수 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지성적인 자각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다. 어떤 형식으로든 천지개벽과 정신개벽의 날카로운 대비·대조를 거치지 않고는 우리 지성적인 자각은 아직 잠을 깰 수 없기 때문이다. 과연 어떠한 형식으로 두 개벽의 결정적인 차별상을 찾아낼 것인가? 하나의 현명한 방법은 역시 천지개벽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는 길이다. 저 놀라운 천지개벽의 본질을 어떻게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우리 인간이라는 입지에서 저 천지개벽의 목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천지개벽의 놀라운 업적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다.

(1) 생명에 대한 지성적인 자각

천지개벽의 과정에서 우주생성의 과정에서 마침내 “생명”이 나타났다. 여기서는 “사람”이라는 생명체를 생명의 놀라운 모습을 엿보기로 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람 또는 인간은 어디까지나 천지개벽에 속하는 육체로서의 인간이다. 사람은 다른 고등동물과 마찬가지로 그 환경의 변화를 알 수 있

는 기능(생물화적인 능력)을 갖추었다. 이를테면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 보는 따위의 감각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를테면 환경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유기적인 능력을 갖추었다. 이와 대응하여 먹을 것은 먹을 수 있고 해로운 것은 피하고 적은 맛서 싸우거나 피해 도망할 수 있는 운동기능을 갖추었다. 이것은 환경에 적응하는 정보처리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사람은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을 통해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종족을 번식한다. 이렇게 자기 육체를 유지(재생)하고 후손을 유지(재생)하는 능력을 재생기능(再生機能)이라 한다.

이와 같이 사람의 생리적인 기능은 놀라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사람은 끊임없이 살아가고 자식을 남기기 위해 곧 재생을 위해 서로 다른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을 잘 활용한다. 이 과정을 다시 정리하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미묘한 상호운동을 엿볼 수 있다. 하나의 재생기능이 서로 다른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으로 갈린다. 거꾸로 서로 다른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이 하나의 재생기능으로 합친다. 여기서 어느 쪽이 먼저라고 할 수 없다. 깊이 따져 보면 하나의 재생기능이 서로 다른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으로 갈리는 것이, 동시에 서로 다른 감각기능과 운동기능이 하나의 재생기능으로 합치는 운동이다. 여기서는 미묘한 상호운동이 절묘한 통합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생명의 통일적인 운동에 감탄하여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은 삼라만상의 근본존재는 생명의 약동이라는 생명철학을 내세웠다. 어째든 우리도 생명체의 이러한 유기적인 운동을 통해 지성적인 자각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

다시 눈을 돌려 한 사람이 그 환경 속에서 사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타고난 소질과 환경 사이에 역시 놀라운 유기적인 상호운동이 펼쳐짐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지적인 자각을 높이기 위해 더욱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온 세계에 있어서의 온 생명체와 온 환경의 관계를 생각할 수 있다. 바로 헤겔(G.W.F. Hegel, 1770-1831)은 이러한 경지로 지성적인 자각을 끌어올리는데 힘썼다. 여기서 그의 이른바 정신의 철학이 태어났다. 어째든 이제 마지막 전체적인 생명의 단계를 살펴본다. 온 인류를 하나의 생명체로 잡고 이에 대한 온 세계를 하나의 환경으로 잡는다. 여기서는 온 생

명체와 온 세계의 유기적인 상호운동이 온 생명으로 합치고 동시에 온 생명이 온 생명체와 온 세계로 갈린다. 이렇게 생명체와 세계와 생명이 서로 다르고 서로 자립하면서 서로 합치는 유기적인 통합운동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생명체란 생물의 형태를 갖춘 생명을 말하고 ‘생명’이란 생명체와 환경(세계)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전개되는 유동적인 생명활동 다시 말하면 “과정으로서의 생명”을 말한다.

이러한 순환이 과정 전체가 생명을 이루고 있다. 처음에 말한 것 곧 (1) 생명의 본질의 직접적인 연속과 견실도 아니고, (2) 존속하는 형태와 자기만으로 존재하는 따로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3) 형태의 순수한 과정도 아니고 더욱이 (4) 이들 계기의 단순한 집합도 아니다. 오히려 생명을 이루고 있는 것은 자기를 전개하면서 이 전개를 해체하는 전체이며 이 운동 속에서 자기를 꾸준히 유지하는 전체일 뿐이다.(「정신현상학」, 헤겔, 헤겔전집3, 주르캄프판, 142쪽)

여기서 헤겔은 “이 순환의 과정 전체”를 생명이라 한다. 이 생명을 흔히 말하는 생명과 다르다. 다소의 오해를 무릅쓰고 쉬운 예를 들어 여기서 헤겔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여 보자. 저 천지개벽이 이루어 놓은 천지와 만물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는 것이 인간의 지성적인 자각이 노리는 마지막 목표다. 이를 위해 천지개벽의 최고 단계인 생명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 생명을 최대한의 전체로서 이해하는 것이 우리 지성적인 자각의 마지막 단계다. 이러한 생명의 이해를 위해 생명의 세 가지 의무를 구별해야 한다.

(1) 생명체로서의 생명. 이것은 생물의 개체나 종족 속에 있다고 생각되는 생명이다. 흔히 말하는 생명이다.

(2) 과정으로서의 생명. 생명체와 그 환경 사이에서 이 두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전개되는 유동적인 생명활동이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생명과는 다소 다르다.

(3) 순환과정 전체로서의 생명. 서로 형태를 달리하는 두 생명체의 상호작용으로 유동적인 통합활동이 전개된다. 동시에 이 유동적인 생명활동이 서로 다른 형태의 두 생명체로 갈리는 활동이 전개된다. 이 합치는 과정과 갈리는 과정(統合過程과 分化過程)이 이어서 되풀이 하는 “순환의 과정 전체”

가 바로 참된 의미의 생명이라고 한다. 이것은 헤겔이 내세운 독특한 생명이다.

(2) 인간에 대한 반성적인 자각

정신개혁의 원리에 따라 인간은 지성적인 자각과 실천적인 자율을 이룩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속이지 않는 인간으로 성숙되어야 한다. 이것을 대순진리에서는 “인간개조”라고 한다. 지금까지 지성적으로 성숙되는 과정을 살펴왔다. 지성적인 자각의 마지막 단계로서 생명의 총체적인 자각에 대해 몇 가지 문제를 살펴보는데 그쳤다.

우리 인간의 지성 앞에는 천지 만물이 펼쳐져 있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고 우리 지성 앞에 펼쳐져 있는 만물은 무한하다. 우리의 지성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인류의 지성의 역사가 우리를 도와준다. 뭐니뭐니 해도 생명은 우리에게 놀라운 존재다. 우리 인간만이 생명이 가장 놀랍고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가깝다는 것을 똑똑히 알 수 있다. 어쩌면 생명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생명에 놀라움을 느끼고 생명에 매력을 느낀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놀라움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매력인지도 모른다.

위에서 우리는 온 생명체가 우주(세계)라는 환경 속에서 생명활동을 펼치는 굉장한 장면을 그려보았다. 간단히 표현하면 인류가 우주와 노름판을 벌이고 있는 장면이다. 어느 영화의 대사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주는 굉장히 크다는 것뿐이다. 인류가 지상에 있는 것뿐이라면 굉장한 공간의 낭비다.” 우주가 아무리 커도 상관없다. 여전히 우주는 하나의 극(지남철의 북극)이고 인류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의 극(지남철의 남극)임에 틀림없다. 하나의 지남철의 북극(우주)과 남극(인류)이 펼치는 거대한 자장을 상상하여 보자. 그 자장의 주인은 우주이기도 하고 인류이기도 하다. 개인의 보기를 들어보자. 어떤 사람이 맑은 밤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높고 넓은 하늘에 저도 모르게 경탄한다. 과연 하늘만이 높고 넓을까? 아니다. 이미 그 사람은 남극이 되고 밤하늘은 북극이 되어 하나의 광대한 자장을 이루었다. 그 자장의 주인은 바로 낮고 좁은 그 사람이다. 다른 하나의 극을 이루는 하늘은

자각이 없기 때문이다.

헤겔이 왜 인류와 우주가 상호작용으로 전개하는 「약동하는 생명의 장」(자력의 장이 아닌 생명의 장)을 제시하셨을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 굉장한 「약동하는 생명의 장」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확신시키기 위해서다.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천지만물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다. 그 근거와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 “정신”(精神)의 본성과 인류사상사를 근거로 삼으려고 하였다.

이제 인간에 대한 반성적인 자각으로 방향을 돌린다. 방금 생명체 전체로서의 생물과 그 환경으로서의 우주가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순환하는 「생명의 약동」을 펼친다고 하였다. 온 생물을 남극으로 온 우주를 북극으로 삼는 거대한 자장(자력장) 같은 약동하는 「생명의 바다」가 펼쳐져 있다고 하자. (온 생물을 위한 우주 차원의 환경보호 운동가들의 활약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약동하는 생명의 세계를 헤겔은 “세계의 영혼” 혹은 “보편적인 생명”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온 생물과 온 우주를 양극으로 하는 거대한 생명의 약동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생명의 위대함을 자각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의 위력을 찬탄하는데 그칠 수 없다. 우리가 찬탄해도 생명은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자각할 수 없다. 인간만이 지성적으로 자각할 수 있다. 본래 자각적인 인간만이 생명의 위대함을 알아줄 수 있다. 그러나 알아주어도 생명은 알아주는 고마움을 모른다. 그렇다면 자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과 생명과의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

통틀어 말하면 인간은 저 놀라운 생명의 운동을 지성적으로 자각한다. 생명에는 이 지성적인 자각이 없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특성이다. 사람들이 흔히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놀라운 특성이다. “그러나 우주가 사람을 눌러 죽여도 사람은 그 죽이는 우주보다 더 고귀하다. 사람은 제가 죽는다는 것도 우주를 못 당한다는 것도 알지만 우주는 어느 하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파스칼의 이 말은 인간의 자각이 얼마나 큰 위력인가를 잘 말해 준다. 생명(보편적·유동적인 생명)은 자각이 없는 위력이다. 인간(정신으로서의 보편적인 인간)은 자각이 있는 위력이다. 이렇게 인간이 본래 자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인간개조”의 기본조건이다.

2. 인간의 실천적인 자율

(1) 자기반성적인 자각의 특성

천지 만물은 생명의 순환 운동 속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일은 인간의 지성적인 자각의 (객관적인 지식의) 최고수준에 속한다. 그러나 이것은 대체로 우리 지성 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쪽이다. 이를테면 객관적인 지식에 속해 있다. 마치 놀라운 생명이 연출하는 거대한 무대를 관람하는 사람의 처지와 같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인간의 지성이 저 무대 위에서 연출하는 생명 속에서 인간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을 “반성적인 자각”이라 하여 저 외적인 관찰을 통한 자각과 구별한다. 여기에는 차원이 다른 크나 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스신화에 나타나는 스피르크스의 수수께끼가 반성적인 자각의 어려움을 잘 말해 준다. 어느 날 오이디푸스라는 슬기로운 청년이 테베의 서울에 나타났다. 방금 테베의 교외 언덕에 괴물이 나타나 시민들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그 괴물이란 여자의 머리에 날개 달린 사자의 몸을 가진 스피르크스라고 한다. 이 괴물이 그 언덕 밑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수수께끼를 내고 이것을 풀지 못하는 사람은 잡아먹는다고 한다. 오이디푸스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스피르크스를 찾아갔다. 아침에는 네 발로 낮에는 두 발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오이디푸스는 그것은 바로 사람이라고 대답해 그 수수께끼를 풀었다. 마침내 스피르크스는 골짜기에 몸을 던져 죽고 말았다. 이렇게 인간은 네 발로 걸은 자기의 과거를 알기 어렵다.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하는 자기의 미래(장래)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정말 보람있는 일을 해야 하는 자기의 현재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인간이 스피르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기만 하면 스피르크스 재난은 저절로 물러간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아내기 어려운 것일까? 인간은 왜 이렇게 스피르크스의 수수께끼를 풀기 어려운가? 왜 이렇게 인간개조가 어려운가? 이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친다.

인간은 너무나 주변에 있는 물건들로부터 방해를 많이 받기 때문이다. 돌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있는데 어찌 인간이 세 발로 걸을 때를 생각하며 네 발로 걸은 때를 생각할 수 있으랴! 이래서 인간은 먼저 주변을 말끔히 정리해야 한다. 이 정리작업에 놀라운 위력을 가진 것이 인간의 지성이다. 이를테면 우리 인간의 앞을 가로막는 바위나 봉우리와 직접 씨름을 한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바위도 봉우리도 개구리도 분자·원자·전자로 구성된 것이라고 물리학적으로 문제를 푼다. 혹은 역학적으로 문제를 푼다. 지난날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음양오행설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물을 말끔히 정리·정돈하였다. 이렇게 인간은 본래 지성의 힘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다.

인간이 지성을 통해 천지 만물이 생명의 약동이라는 자각에 도달했다. 이 놀라운 생명 속에서 인간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냈다. 스프링크스의 수수께끼가 풀린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생명의 놀라움을 찬양해도 생명 쪽은 통 알아듣지 못한다. 그렇다. 생명은 놀랍기는 하지만 아직 자각이 없다. 우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자각있는 생명(생물의 생명 아닌 보편적인 생명)이라고 자각한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정신(자각존재)은 생명에게 그의 전 단계라는 지위를 부여하고 생명과 대립한다. 이렇게 반성적인 자각은 생명을 우선 자기와 분리하려는 쪽으로 기울여진다.

(2) 서로 인정하는 관계에 대한 자각

인간의 정신은 정말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상대를 찾아낸다. 이리하여 서로 인정하는 관계를 통해 서로 자유를 얻으려고 한다. 이제야 인간의 정신은 동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인권을 보장받는 단계로 접어든 셈이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일 뿐이다. 정말 인간개조의 길은 멀고도 어렵기만 하다. 그러나 이 길은 인간의 정신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우리 인간도 고등동물에 속해 있는 생명체로서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다른 생물과 다른 점은 본질적으로는 생명을 초월한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이렇게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로서 생명과 대립하여 생명과는 다르다는 확신을 본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확신이 주관적일 뿐이다. 인간의 지성적인

자각은 이 주관적인 확신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정신은 생명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확신을 관철하려는 정신의 단계를 욕구(欲求)라고 한다. 물론 여기서는 정신적인 욕구를 뜻한다.

생명을 본래 정신보다 낮은 단계라고 하여 이 생명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생명을 먹어 소비하는 삶의 태도다. 인간은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으면 먹어 버리고 입을 수 있는 것이면 옷을 지어 입어 버리고……어떻게 보면 “욕구”는 인간개조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욕구”라는 말을 좀 살펴보자. 욕구라는 말은 욕망이라는 말과 가까우면서 좀 다르다. 우리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욕망을 다소 부정적인 의미로 써왔다. 그래서 심리학 같은데서는 욕구라는 말을 주로 쓴다. 여기서는 욕구를 행동의 동기라고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욕구도 욕망에 가까운 것으로 보고 점잖은 자리에서는 잘 쓰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의욕(意慾)이라는 말은 좋은 뜻으로 널리 통해왔다. 지금 학술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널리 쓰는 말은 욕구이므로 좀 억지를 부려 욕구라는 말에 욕망·의욕의 뜻까지 곁들여 쓸 수 있다.

이제 인간의 정신은 생명과 맞서서 생명을 거부하고 자기만으로 존재하려는 욕구로 무장하였다. 욕구의 철학적인 의미는 이렇게 인간의 정신이 완전히 자립하려는 의욕을 뜻한다. 이러한 의욕은 좀 과장해 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 치우려고 한다. 이것은 동물 속에서 원색적으로 잘 나타난다. 멧돼지는 곡식이건 야생이건 닥치는 대로 먹어 치운다. 이렇게 왕성한 “욕구”를 헤겔은 긍정적인 뜻으로 깊이 해석한다. 인간의 정신이 완전히 자립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라 한다. 오늘날 소비의욕에 대해 많이 논의되고 있다. 주로 경제적·정치적인 차원일 것이다. 그러나 소비의욕의 철학적·종교적인 차원도 어떠한 형식으로든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둘레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려는 “욕구”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인간의 지성은 자각하고야 만다. 이 자각으로 인간의 정신은 또 새로운 단계에 다다른다. 인간개벽은 또한 단계를 넘어서게 된다. 자연을 상대로 한 곧 생명을 상대로 한 “욕구”는 본래 채워질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정신은 그 지성을 통해 욕구도 욕구의 대상도 끝

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상식도 이런 사실은 잘 알고 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의 정신의 한 단계인 “욕구”는 생명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본래 인간의 정신이 단계를 달리함에 따라 그 대상이 달라진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신이 완전히 자립하려는 단계의 대상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온 생명체와 그 환경인 온 우주의 상호작용으로 전개하는 보편적인 생명의 약동이다. 이것은 그 자체로 움직이면서 스스로 재생하는 당당한 실체다. 바로 이러한 생명이 욕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인간의 욕구가 아무리 왕성한 소비의욕으로 소비하려 해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은 그 완전 자립의 확신을 단념할 것인가? 인간개조의 천지공사를 포기할 것인가? 그럴 수는 없다. 인간의 정신은 생명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존재임을 확신해 마지 않는다. 정신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립을 확신하면서 자신의 온전 자립을 더욱 더 확신할 뿐이다. 또 한 단계의 교양을 쌓은 정신은 저 무뎠직한(自覺없는) 생명은 상대가 아니고 “스스로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냈다. 생명은 본래 자각이 없어서 자기를 “부정”(否定, 양보도 이 부정에 속함)할 수 없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할 수 있는 정신이 그만큼 높은 단계에 있다. 이제 정신은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한 단계 높은 대상을 상대하게 된다.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는 대상은 역시 인간의 정신뿐이다. 지금도 정신의 욕구는 변함없이 자기 자신의 완전 자립(자유)이다. 여기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여기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저 근대인의 외침을 생각해 본다.) 이렇게 어느 쪽도 완전 자립을 고집하는 정신과 정신 사이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기서 비로소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인정을 받는 “상호인정”(相互認定)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것을 세계사 쪽으로 보면 인간개조의 단계가 근대문화의 단계로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상호인정”이란 과연 어떠한 관계일까? 인간의 정신은 그 “욕구”의 단계에서는 상대를 부정하고 마구 소비함으로써 자기의 자립성을 확인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 상대가 자각이 없고 그 자립성이 움직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남은 길은 하나 뿐이다. 자

각이 있어서 자진해 인간의 자립성을 인정하는 상대와 관계하는 길 뿐이다. 그런 상대는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인간을 상대로 할 때만 자기 자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상대 쪽 인간도 인정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는 본래 동등한 “상호인정 관계”만이 서로 참된 자립성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상호인정 관계”는 너무나 당연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 그러나 깨닫고 보면 인간으로서는 가장 자각하기 어렵고 가장 자율적으로 실천하기 어렵다. 이를테면 인간개혁의 가장 어려운 고비도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이모저모를 언급하는데 그친다. 공자에게 그 제자인 자공(子貢, 재주도 뛰어났고 재산도 많았던 제자)이 오직 한 글자로 일생 실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이에 공자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그것은 서(恕)일 것이다. 내가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論語, 衛靈公 第十五) 재주가 뛰어난 제자에게 공자가 “서”(恕)라는 글자를 일생을 통해 실천하라고 가르쳤다. “서”(恕)에 대해 주자는 “자기 마음을 미루어 남에게 미침”(推己及人)이라고 풀이했다. 자기 마음을 미루어 자기가 바라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것이다. 간추려 말하면 “자기가 바라는 것을 남에게 하라”는 점이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것을 일생을 통해 실천하라고 하니 오히려 이상한 듯하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이 바로 “상호인정”의 관계이기 때문에 가장 자각하기 어려운 문제다.

본래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원자와 원자의 관계와 다르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을 분석해 보자. (1)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 버린다. 자기를 다른 사람으로 보기 때문이다.(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같다고 보고 그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기 때문이다. 주자가 말하는 “남에게 미친다”는 것도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에게 자기를 맡기는 것이다.) (2)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없애버린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립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다른 사람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자기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주자가 말하는 “남에게 미친다”는 것도 다른 사람 속으로 들어가 차지하고 만다는 뜻이다.

왜 이렇게 복잡한 얼키고 설킴이 있게 되는가? 인간의 정신은 원자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신의 단계에 있는 인간은 “자기”와 “자기 아닌 것”(他者, 자기의 分身)의 통일운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인정”의 관계는 두 통일운동의 복잡한 상호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공자는 재주에 뛰어난 제자도 일생 실행하라고 하여 “상호승인”의 지성적인 자각의 어려움을 강조했다. 더욱이 공자는 주로 도덕감정 쪽으로 언급했다. 그 지성적인 분석은 인류의 세계사를 통해 축적된 지식들이 총동원되어야 한다. “상호인정 관계”의 지적인 자각은 이제 출발이다.